하늘법당 최초 '자비광명' 불꽃 지피다

조계종 군종교구 4기 첫 행보 공군사관학교 '평화의불' 봉안

"아이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행사가 가능할까?"

"부처님 가피가 있을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비가 그칠 겁니다."

중부지역에 기습적인 폭우가 내린 8월 11일, 청주 공군사관학교 연병장에 도열한 관광버스 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자리는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혜자)가 신임교구장 혜자 스님 취임 첫 행보로 군법당 평화의불 봉안을 위해 청주 공군사관학교 성무호국사를 찾은 것이었다. 여름 휴가철 수시간 동안 피서 인파를 뚫고 도착한 청주에서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었다.

혜자 스님의 평화의불 봉안 취지에 공감한 108산사순례기도회 1200여 대중들은 발이 묶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거짓말 같이 분등을 준비하자 비가 그쳤다. 무더웠던 이날 날씨도 선선함이 느껴졌다.

신임교구장 취임 첫 행사
평화불꽃 관음보살로 화현
신심증장과 평화기원 함께해
"평화 위해 불자 힘 모으자"



조계종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사진 왼쪽 세번째)이 불자대중들과 평화의불을 분등하는 순간 불꽃이 마치 보관을 쓴 관음보살처럼 타오르고 있다. 불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는 관음보살처럼 평화의불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깃들길 기원한다.


성무호국사를 가득 메운 1000여 불자들의 모습.


혜자 스님이 평화의불을 이운하고 있다.


열을 지어 공군사관학교를 참배하는 대중들.


이날 초코파이와 지원보시금도 전달됐다.

평화의불은 혜자 스님이 부처님 탄생지 네팔 룸비니에서 채화해 DMZ를 시작으로 53기도도량 순례를 하며 전국사찰에 분등하고 있다. 특히 혜자 스님은 군종교구 취임과 함께 전방부대 군법당의 평화의불 봉안을 밝힌 바 있다.

공군사관학교 성무호국사를 첫 군법당 평화의불 봉안처로 택한 것은 하늘부터 땅까지 평화의 기운이 깃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였다. 질서 정연하게 성무호국사를 참배한 대중들은 봉안의식 내내 간절한 마음으로 평화를 염원했다.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등 불교의식을 진행한 후 평화의불은 혜자 스님과 성무호국사 주지 기학 스님의 손을 거쳐 성무호국사 등잔으로 옮겨졌다. 조용히 타오르던 불꽃이 옮겨지는 순간 마치 보관을 쓴 관음보살과 같이 피어올랐다.

분등 의식에 이어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의 취지를 설명하는 법문이 진행됐다. 대중들은 스님의 말 하나 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혜자 스님은 "작금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에 처해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모든 대중들이 안게 된다"며 "우리 마음의 평화가 나의 평화를, 나의 평화가 가정과 사회, 남북한과 세계평화까지 이어진다. 군법당에 평화의불을 밝혀 개개인이 함께 평화를 기원하자"고 말했다.

이어 혜자 스님은 평화의초도 보급할 계획과 함께 군법당을 찾는 장병들이 본인과 가족을 위해 초를 밝히는 것을 통한 새로운 군포교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스님은 "법당에 가족을 위한 기도의 상징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발길을 이끌 수 있다. 장병들에게 설법하고, 공양을 하는 것 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장병들이 군법당에서 직접 평화의 초를 밝히며 장병들의 마음도 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평화의불 봉안의식에 참여한 불자들은 군포교를 위한 초코파이와 보시금을 성무호국사에 전달했다.

공군사관학교를 대표해 나온 박찬훈 대령은 "어두운 밤하늘에서 전투기를 몰땐 외롭지만, 내려다 본 대한민국의 불빛을 보면 이 땅의 평화를 꼭 지켜야 겠다는 마음이 솟구쳐 오른다"며 "오늘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하신 불자님들의 원력이 우리 공군,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 모두에게 전달돼 대한민국 평화 수호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유동에서 온 박경숙 불자는 "평소 순례마다 초코파이 보시 등 군장병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고 있지만, 혜자 스님의 교구장 취임으로 그 동참의미가 남다르다"며 "아무쪼록 고생하는 군장병들이 무사히 군생활을 마치고, 또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지내길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무호국사 주지 기학 스님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의 조종사와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에 평화의불이 처음으로 봉안된 것은 공군으로서도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며 "하늘을 지킬 사관생도들이 불교를 접하고, 하늘에서부터 장병들에게 불법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포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종교구 군법당 평화의불 봉안에 동참한 불자대중들이 성무호국사를 돌아서 나오는 길,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파랬다. 성무호국사에 산처럼 쌓인 초코파이 박스를 남기고 이들은 다시 수행정진의 길을 떠났다.

한편, 군종교구는 8월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원광사 내 교구회의실에서 운영회의를 열고 수석부교구장에 남전 스님, 차석부교구장에 지선 스님을 임명했다. 또 새로 신설된 행정팀장과 사서팀장에는 김기정 前재무팀장과 임병화 불교신문 前편집국장이 임명됐다. 군종교구는 이어 8월 20일 원광사에서 교구장 환영법회와 평화의불 봉안법회도 진행했다.

청주=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7학년도 생활풍수 최고지도자 과정 제15기생 모집

'글로벌 리더를 향한 꿈의 도약'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이루십시오

풍수지리 전문가를 향한 꿈의 날개를 펴라!
최고의 교육환경과 교통의 최적지인
서울 남산에 위치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전문 자격인의 길, 풍수지리사로 미래를 열어나갈 인재를 모십니다

국무총리실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풍수지리사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21세기에 요구되는 전문가로의 탄생!
21세기는 전문가 시대!
풍수지리학의 이론과 현장실습의 전문교육을 통하여
자격기본법에 의한 양택감정사, 풍수지리사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풍수지리 전문가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입학안내
■ 접수기간 _ 2017년 8월 1일 ~ 2017년 9월 4일
■ 접수처 _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사회과학관)
■ 문의 _ 생활풍수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연구실
02)2260-8576 / 010-3795-5088(박종희)
주임교수 _ 심재열 박사 010-5282-3388

모집요강
■ 입학자격 _ 모든 일반인 남·여대상
■ 입학정원 _ 50명 선착순 마감
■ 교육비 _ 220만원(학기당)
■ 실습비 _ 별도

교육특전
■ 동국대학교 총장 수료증, 행정대학원 원장 인증서 수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풍수지리사, 양택감정사 2급,1급 자격증 수여
■ 수료 후 문화센터 및 사회교육기관 강사 추천

교육기간
■ 개강 _ 2017년 9월 5일(화요일)
■ 교육기간 _ 1년(2학기), 학기당 16주, 17회
■ 장학제도 _ 승려 30%할인, 동국대학교 동문 20%할인

원서교부 및 접수
■ 제출서류 _ 입학지원서 1부, 사진(3x4cm)3매
■ 원서교부방법 _ 홈페이지에서 입학지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_ ① 온라인 - http://gspa.dongguk.edu 접속 후 입학지원
② 홈페이지 - www.iysps.com(요산풍수지리학회)
③ 우편 -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우 04620)
■ 전화접수_전화로 인적사항 통보 후 등록금 송금
국민은행 068837-04-006675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